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고난받은 주를 보라(찬12/새33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다무라고조 장로 2부/김태원 장로 3부/김종곤 집사 4부/임지은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혜(박재형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출애굽기(Exo.) 13:17-19..... Altogether **다같이**
4부/에베소서(Eph.) 4:17-24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함께 걷는 약속의 길

- 4부.....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내 옷장에 입을 옷이 없다고 느낄 때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404/새304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너무 궁금한 예수님 이야기

The Story of Jesus I'm So Curious About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장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그분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사람들은 왜 그분을 따르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했을까? 사실 성경을 읽을수록 가장 궁금해지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부탁을 끝까지 지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또한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하여 밤오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영화로우신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해 준다면, 요한복음은 가장 가까운 제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여 줍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곁에서 동행한 기자가 한 사람을 깊이 취재하여 그의 진짜 모습을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단순히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대답입니다.

이번 새 주일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너무 궁금한 예수님 이야기』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자세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가장 흥미로운 책이 됩니다. 읽을수록 더 알고 싶고,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요한의 안내를 따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보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베드로, 도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요한은 우리를 그 질문의 답으로 인도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궁금한 예수님 이야기』 개봉박두!

Everyone has someone they are "most curious about." As we read the Bible, we naturally come to ask these questions: "What kind of person was Jesus, after all?" Why did He say those things? Why did He perform those miracles? Why did people follow Him, and others hate Him?" In fact, the more we read the Bible, the more Jesus becomes the person we are most curious about. Then, who was the person who watched Jesus from the closest distance? Perhaps many people will think of one person. It is none other than Apostle John. John was the disciple whom Jesus entrusted His mother, Mary, while on the cross. He kept that request until the very end, honoring Mary as his own mother. He was also the one who survived the longest among the twelve disciples, recording the book of Revelation on the Island of Patmos, and looking upon Jesus, the glorious Lamb, until the very end. The book that John left for us is the Gospel of John. While Matthew, Mark, and Luke deliver the life of Jesus relatively objectively, the Gospel of John shows Jesus through the eyes of His closest disciple. It is just like a reporter who accompanied someone for a long time, gathering information and reporting on that someone's true self. The Gospel of John is not simply a book that records the life of Jesus, but the deepest answer to the question, "Who is Jesus?"

This is also why the title of new sermon series is called 'The Story of Jesus I Am So Curious About'. The best attitude for reading the Bible is curiosity. To a curious person, the Bible becomes the most fascinating book. The Bible is a book full of stories that make you want to know more the more you read, become more curious the more you hear, and make you want to share with the people you love. And Jesus is always at the center of it. In this series, we intend to meet Jesus up close, following John's guidance. Starting with the first sign where water was turned into wine at the wedding in Cana, we will look at Nicodemus, the Samaritan woman, the sick man of 38 years,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five loaves and two fish), the man blind from birth, Martha and Mary, Peter, Thomas... As we follow the people and events that met Jesus, we will eventually stand before one question: "Who is Jesus?" And John guides us to the answer to that question.

During the remaining period of this year, I hope you will follow the story of Jesus that John saw, heard, and recorded from the closest perspective. Through that journey, I hope that we too, like the disciples, will see the glory of Jesus and come to love Jesus even more. 'The Story of Jesus I Am So Curious About' is coming soon!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황모세 목사

함께 걷는 약속의 길 출애굽기 13:17-19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에서도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길로 인도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참고/ 출 13:17-18)

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지만,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졌던 적은 없습니까? 그때 내 마음이 붙들고 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참고/ 출 14:11-12)

3.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대열을 지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오합지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나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보다 나의 부족함만 더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참고/ 출 13:18)

4. 이스라엘의 입에는 불평이 있었지만, 그 행렬 안에는 요셉의 유골, 곧 약속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직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는 '요셉의 유골'과 같은 믿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응답, 신앙의 유산,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참고/ 출 13:19, 창 50:24-25)

5. 요셉은 약속을 남겼고, 모세는 그 약속을 계승했습니다.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의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참고/ 히 11:22, 히 12:1-2)

적용하기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이번 엘리사 새벽기도회와 오이코스 예배 특송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여정'이라는 찬양을 부르기로 결정했을 때, 아침부터 이렇게 큰 찬양을 해도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권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23-24절을 주시면서 저에게 나레이션을 부탁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시 37:23-24)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영영 울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를 반복하며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요즘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라는 돌이 던져져 커다란 파도가 나를 흠뻑 젖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려, 경숙아!' 특송한 '여정'의 가사처럼 저의 짧은 여정을 지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가슴이 터질 것같이 아프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왜 나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내어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며 가슴 치며 원망의 기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치

새벽 여정의 감사

며 아팠던 날들보다 기도했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넘기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흘린 눈물이 몇천 배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엎어지고 무너질 것 같아 보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주님이 우리 가족을 붙드시고 계셨기에 지금 이곳 베델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 은혜받고 사랑받고 베델이라는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지금 먹고 입고 신앙 생활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님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걸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지금 이곳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남은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한 공동체인 베델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감사로 섬기며 나의 여정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박경숙 권사

박성권 목사님의 설교로 시작된 조이, 화평목장의 일주일간 새벽기도회는 새로운 도전과 뿌듯함



을 안겨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대부분 은퇴 부부들로 모여 사는 목장 식구들이 과연 일주일의 엘리사 새벽기도회를 견뎌낼 수 있을까 했는데, 매일 새벽 각 셀 위주로 정성껏 준비한 아침을 드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 화기에애한 목장 식구들을 보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탄성이 절로 나오며 하루가 오히려 새로운 힘으로 충전되는 날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찬양에서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를 두 목장이 어울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은혜와 기쁨의 눈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벅찬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골 3:1)라는 박성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는 과거의 신앙에서 벗어나,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의 신앙 속에서 위의 것을 찾는 일주일의 새벽 여정이 감사로 마무리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진숙 권사

사역 소개

예향

베델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예향'



'예향'은 베델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음식에 담아 전하는 사랑의 섬김 사역입니다. 향암 치료(키모)를 받고 계신 암 환우들, 특히 몸이 힘들어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성 환우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와 셋째 주 월요일 이른 아침이면 교회 주방은 분주한 손길과 맛있는 음식 향기로 가득합니다.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은 정갈하게 포장되어 얼바인, 라구나우즈,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풀러턴 등 여

러 지역의 환우들에게 배달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봉사자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베델은 한 지체가 아프면 온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작은 음식 한 끼가 환우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가족들에게는 힘이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향은 한 분의 환우를 위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섬기며,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으로 완성된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해 베델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향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환우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마 25:36)

정티나 목사



Come&See 50 특집 8

베델의 여정

선교의 비전으로 함께 한 베델



베델교회 50주년을 바라보며 베델에서 저희 가정의 역사도 돌아보게 됩니다. 1991년 크리스마스이브, 친구들과 밤새워 놀다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집에 내려가는 길에 있는 베델교회 성탄예배를 드린 그 주일을 시작으로 30대부터 50대 중반을 베델에서 함께 했습니다. 초창기 의료사역으로 20여년간 1년에 한두 번씩 다녀온 단기선교, 교육부와 의료부서에서 섬기던 사역을 캄보디아로 옮겨 베델 식구들과 35년의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보통 선교사님이라 하면 떠올려지는 모습과 달라서인지, 제가 캄보디아로 파송받을 때 베델교

회에 다른 황현주를 찾는 소리를 들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평신도인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Church Planting'도 모르던 평신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는 예배다'라는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꼬랑찌**의 New Hope School과 캄보디아 베델교회, 그리고 **깍의** 두 교회와 새소망학교 유치원을 세우게 하시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학교 문을 열면 '네꾸루(선생님)'하며 달려오는 꼬질꼬질한 어린 성도들이 매일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음정, 박자와 무관한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10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1년 내내 모기, 뱀, 벌레들, 이런 열악한 환경도 빼앗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동네 면장님이 봉투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열어보니 교사 두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학교가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과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함께하고 싶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생각에 큰 감사가 넘쳤습니다. 작년에 첫 신학생도 보냈고, 올해는 치과대학과 신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베델과 함께 다가올 100년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결같이 저희 부부를 위하여 기도로, 사랑으로 말없이 곁에서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좁은 길,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 베델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황현주 선교사

훈련 간증 양육반

운동화 끈을 다시 매듯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다니던 저의 모교회입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가지 않고 한 곳에 계속 살았기에 미국 오기 전까지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어려서는 혼자 교회를 다녔으나 가족을 하나씩 모두 전도했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모교회에는 저의 동생 가족과 그때 친구들이 권사, 장로로 섬기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있던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부 때 뜨거웠던 시절 이 교재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가르치던 선생님은 목사님이 되었고, 이제는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나 다시 공부하니 감회가 새롭고, 그때 내가 제대로 공부했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는 초등 학문에 있는 것처럼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성숙해지기 위한 신앙인으로 다시 기초로 돌아가 믿음을 다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새롭게 달리기 위해 운동화 끈을 다시 매듯이 시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며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이 무조건 예수님으로 나오는 상투적인 답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각하며 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기본 진리> 책은 참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난주간에 읽게 되어 예

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알게 되어 기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내가 믿는 믿음에 물을 부어 콘크리트같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예배도 전날 꾸벅꾸벅 졸면서 했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마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성경 암송도 예전에 외웠던 것인데 다 잊어버렸었지만, 다시 암기하니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육에 힘쓰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공부한 자매에게도 같이 공부하게 되어 힘이 되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에 집사

교회학교 - 교사/TA 간증
영아/유아/유치부 VBS

작은 섬김, 큰 은혜



I grew up in a church community, but I was always very lukewarm about my faith. As I grew into a follower of Jesus, I remember my BYM pastor talking about how the Kingdom of Heaven is 'flipped'. He explained that while adults and elders are prioritized and respected in this world, young children are treasured and considered especially precious in the Kingdom of Heaven. Hearing this made me realize what an honor it is to serve God's precious children.

While serving at this year's Emerald Crossing VBS, I was so happy to see the children praising the Lord's name. Even though I was tired, I was humbled to see adults and college students serving faithfully while also balancing school and work. I realized that I had no right to complain when others were giving so much of their time and energy.

Serving at this year's Emerald Crossing VBS made me realize just how great our God is. I am thankful for my parents, pastors, and friends, but above all, I give the greatest thanks to God for allowing me to serve and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Emily Choi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신나게 울동을 따라하며 찬양하는 아기들! 아직 이름과 나이를 헛갈려 "What's your name?"하고 물으면 "Two!"라고 대답하는 귀요미들과 함께 천국 같은 일주일을 보내며, 무더운 한여름을 살아갈 기쁨과 힘을 얻었습니다. 베델기도회의 응답으로 선물처럼 찾아온 딸이 유아세례를 받고, 세 살 때 첫 VBS 무대 위를 뛰어다니다가 선생님께 붙잡혀 오곤 했던 모습이 옛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기들이 너무 예쁘다며 TA로 함께 봉사한 지도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한번에 부르시면 되지 왜 각각 부르실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 딸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VBS에서 만난 아기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그 무엇보다 귀한 삶을 알아가는 귀한 시작이 바로 VBS라고 믿습니다.

짧다면 짧은 며칠간의 VBS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눈물과 땀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VBS의 주제를 다시 한번 함께 외쳐 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강 영 집사

저는 이번 VBS에서 Bible Station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신 선생님들의 모습에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낸 하나님의 선한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드린 것은 작고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연극을 도와준 학생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도 참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함께하는 모습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며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또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VBS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함께 섬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통해 사랑과 은혜를 배울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a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 감사합니다.

유소피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새가족 만찬

시원한 여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베델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여 베델 가족이 되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델 가족이 되심을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새가족 만찬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11일(토) 새가족 만찬에 베델의 새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신 모든 분은 가족과 함께 꼭 참석하셔서 목회진과 리더십, 새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들과 베델 목회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참석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으신 분은 준비를 위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일시: 7월 11일(토) 오후 4시 20분
- ▶ 장소: 유년부실
- ▶ 문의: 석승진 장로 (949)232-0872
황의진 집사 (949)929-562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월)	7/12:	①부-김재호	②부-김종학	③부-김종현	④부-변은재
	7/19:	①부-김태현	②부-김병주	③부-박재문	④부-남경인
	7/26:	①부-박상곤	②부-김학남	③부-박호성	④부-이민수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8월)	7/11:	이배운	7/18:	유형석	7/25:	이기호	8/1:	이요셉
	강단꽃(7월)	7/5:	김인권, 유정선	7/12:	조 루	7/19:	조형미	7/26: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진선(내분비 내과), 간호사-박규희 다음주 | 의사-탁정호(소아과), 간호사-장한나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1-4부 예배는 황모세 목사님(와싱턴중앙장로교회)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제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통찰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알찬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특별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와 배움이 가득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사: 노진준 목사 (순회설교자, Preaching Coaching Ministry)
박성일 목사 (기쁨의 교회 담임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겸임교수)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담임목사)

일정:
-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불확실한 자아'(노진준 목사)
- 8월 1일(토) 오전 6시 '불확실한 가정'(박성일 목사), '불확실한 관계'(정갑신 목사)
토요 패넬토의: 김한요 목사 인도, 3명 강사 패넬리스트
- 8월 2일(주일) 1부 '불확실한 교회'(노진준 목사), 2부 '불확실한 세상'(박성일 목사), 3부 '불확실한 미래'(정갑신 목사)

◆ 수요일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문의: 7월 8일(수) 저녁 7시 30분,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WASC 인증 획득 BCA가 지난 주에 미국 서부 학교·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서 BCA의 교육 과정, 교사진, 행정 시스템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베델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계속 발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BYM "Harvest Crusade" 등록 BYM 학생들을 남가주 최대 규모의 복음 집회인 Harvest Crusade에 초대합니다. 올해 집회에는 Phil Wickham, Kari Jobe & Cody Carnes, Michael W. Smith가 함께하며,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VIP 좌석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모임 장소: 7월 11일(토) 오후 3-10시, 베델교회 체육관에서 집합(단체 이동)
등록: QR 코드

◆ 단기선교팀원 모집 9월 14일(월)-22일(화)까지 있을 베트남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한의사와 VBS를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문의: 이강오 장로 (949)281-9530

◆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올 여름 소망부 VBS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등록 방법: 7월 21일(화)-24일(금) 오전 9시-오후 3시, QR 코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B2N 2027 서류 및 등록비 제출 실크웨이브 선교회의 B2N 참석자는 여권 사본과 등록비를 코트야드 부스나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재정실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충경 목사 (949)537-6968, 황세헌 장로 (949)648-1907

◆ 2026-27년도 AWANA 등록 9월 18일부터 AWANA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성경 중심의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AWANA에 우리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등록 기간: 7월 26일까지(K-5학년 100명 선착순)
프로그램 기간: 9월 18일-11월 20일(가을학기)
대상/등록비: K-5학년, \$65(티셔츠 필수, 따로 구입 필요)
등록 방법/문의: QR 코드, 이근제 집사 (716)907-118



◆ 정기 제직회 7월 18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큐티인 7월호 판매 QTin 7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풍성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사무실 휴무 안내 7월 7일(화)는 교회사무실 휴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역자 동정
- 오늘(5일)부터 Beyond The Blue 사역에 오경희 전도사가 부임하여 섬깁니다.
- 오늘(5일)부터 KM목장 사역에 이형석 목사가 부임하여 섬깁니다.

◆ 기도해주세요
- 예살 몽골선교와 BYM고등부 캄보디아2 그리고 베델그레이크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선교 중입니다.
-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십 컨퍼런스가 7월 13(월)-16일(목)까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미리 파송기도 합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은겸 권사님(순성모 집사의 모친, 김선경 권사의 시모)께서 7월 2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BYM,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e Promised Path We Walk Together

Exodus 13:17–19

1. God led Israel not by the shortest path, but by the path of the wilderness. In your own life, have you ever expected the “fastest and easiest way,” only to be led by God along a path that seemed like a detour? What did you learn anew about God as you went through that time? (Ref: Ex 13:17-18)

2. Although Israel was under God's guidance, they poured out fear and complaints before the Red Sea. Have you also ever found yourself complaining more rather than giving thanks for receiving an answer to your prayer? What was the fear that your heart was clinging to at that time? (Ref: Ex 14:11-12)

3. God led the unprepared Israel to advance “in formation.” Although they appeared like a disorganized rabble in the eyes of men, God viewed them as a people advancing toward the promise. When you look at yourself or your community, what aspects do you focus more on than God's perspective? (Ref: Ex 13:18)

4. Although there were complaints on Israel's lips, within the procession were Joseph's bones, i.e., the sign of God's promise. What are the signs of faith, like “Joseph's bones,” in your life that remind you that God has not yet given up on His promise? If anything comes to mind from the Word - answered prayers, a legacy of faith, or someone's confession of faith, let us share it. (Ref: Ex 13:19, Gen 50:24-25)

5. Joseph left a promise, and Moses inherited it. That promise finally became our hope in Jesus Christ. What are you leaving behind for the next generation? What is the decision of faith that you must hold onto today to convey God's promise fulfilled in Christ, rather than your own complaints and fears? (Ref: Heb 11:22, Heb 12:1-2)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